

겨울철새 전국 156만 마리 서식...조류인플루엔자 비상

환경부·생물자원관, 철새도래지 200곳 조사 한 달새 9.3% 늘어...1년 전보다 3% 더 관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주된 전파 경로로 꼽히는 겨울철새가 전국에 156만여 마리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9~11일 사흘간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1종 156만5291마리의 겨울철새가 도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달(143만2646마리)에 비해 9.3%, 지난해 같은 시기(151만9572마리)보다는 3.0% 더 많이 관찰된 것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오리·기러기·고니류) 조류는 125만5549마리 발견됐다. 전체 겨울철새의 80.2%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15.1%, 전년 대비로는 2.1% 증가한 수치다.

겨울철새의 주요 분포 지역은 금강호, 영

암호, 동진강, 만경강 하류 등 전북 서해안과 전남 서·남해안이다.

또 최근 일본에서 유행하던 흑두루미 중 일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의해 대규모로 폐사했는데 이를 피해 일부 개체들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흑두루미 개체 수는 6700여 마리다. 순천만에서 가장 많은 4437마리가 관찰됐으며 간월호(1055마리), 여자만(685마리), 광양만·갈사만(285마리), 고흥호(105마리) 등의 순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흑두루미를 취약종으로 분류하며 전 세계적으로 1만50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흑두루미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흑두루미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위행 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지난달 21일에 일본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흑두루미를 포함해 순천만에서 9800여 마리가 관찰됐지만 이후 일부 개체는 일본으로 다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개체들은 순천만을 중심으로 분산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겨울철새가 10월 말부터 본격 도래해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최대 개체군을 형성한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내년 3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응한 비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상시예찰 대상 철새 도래지 87곳에 대해 주 1회 이상 예찰하고 출입 통제관리와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받아 진단한다.

지난달 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는 69건으로 전년 동기(9건)보다 7.6배 증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겨울철새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수는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선욱기자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겨울철새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수는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해 인사 전하는 연하장 2023년 새해를 앞둔 18일 오후 대구 중구 교보문고 핫트랙스를 찾은 시민들이 연하장을 살펴보고 있다.

광양·장흥 학교 잇단 갑질...사실관계 조사중

광양 A초 교장, 수개월 동안 폭언...교사들 모멸감 호소 장흥 B중학교도 교사 앞에서 서류 찢고 매일 출근확인

'폭언·인사조치 협박' 등 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상급자에 의한 갑질문제가 수개월동안 지속된 가운데 교육지원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18일 광양·장흥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양의 A초등학교와 장흥의 B중학교에서 교장 등에 의한 폭언 등 상급자의 갑질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양 A초등학교는 교장이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지난 3월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초 교장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한 교사가 서류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업무가 마비됐다"며 폭언을 했으며 운동회와 야외수련활동 과정에서 교육장비 등을 뒤늦게 설치했다는 이유로 학생들 앞에서 고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사이동조치 협박, 이른 오전 출근 지시, 비인격적 언행, 육아시간 사용 제한 등 각종 문제가 불거져 지난 7월에는 면담을 통해 일부 교사가 "언행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A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장의 폭언으로 인해 모멸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광양교육지원청이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장흥의 B중학교도 교육 관련 서류를 교사가 있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매일 출근확인, 부당한 요구 등이 지속돼 교육지원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도 나주의 C중학교에서도 교감의 폭언으로 인해 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갑질문제가 불거져 조사에 나섰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 등 상급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도교육청에 보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전남지부 관계자는 "징계 등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강하게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